

韓·中 친족 호칭 ‘형수’와 ‘제수’에 대한 通時的 비교

유 현 아
(숙명여자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호칭은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서, 친족어가 호칭어로 사용되면 우리는 그 호칭을 통해서 화자와 청자의 친족 관계를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친족 관계 및 호칭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17세기 이전까지의 한국의 친족 체계는 중국과 전혀 다르게 父系와 非父系를 구분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동심원 구조를 가진 체계였다.¹⁾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朱子家禮』가 보급되면서 宗法이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17세기 전까지는 부계 친족에 못지 않게 모계나 처계 친족의 비중이 중요했던 친족 관계를 유지하다가, 16세기에 두텁게 형성된 사대부들에 의해 예학이 흥기하면서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朱子家禮』와 종법 질서에

1) 이종서, 「14세기 이후 친족 용어의 변천과 친족 관계」, 『역사비평』 63호, 2003년 5월. p.221~248 참조.

대한 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7세기에 본격적으로 父系 및 長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친족체계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²⁾

친족은 혈족과 인척의 관계로 맺어진 집단을 의미한다. 혈족은 자기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 관계를 가리키고, 인척은 자기와 혈연 관계는 없으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친척 관계이다. 혈족과 인척 모두 자신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계와 방계로 나누어지며, 직계 혈족은 자기를 중심으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로, 祖父祖母, 父親母親, 子女, 孫子孫女, 外祖父外祖母, 外孫子外孫女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방계혈족은 자신을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수평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兄弟姊妹, 伯父, 叔父, 姑母, 外三寸, 姨母 등이 방계혈족이다. 인척 역시 직계와 방계로 나뉘며,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직계 인척, 방계 혈족의 배우자는 방계 인척이다.³⁾ 17세기 이후 우리 나라는 중국의 친족 체계에 따라 친족 관계가 정비되면서 친족 호칭도 거의 같은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최초에는 영향을 받더라도 발전 과정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복잡한 친족 호칭 중에서 방계 인척에 해당 하는 ‘형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나타내는 친족 호칭어를 通時的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호칭은 크게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화자가 대화 속에서 가리켜 일컫는 대상을 지시하는 지칭어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형수’와 ‘제수’는 직접 호칭어이면서 지칭어이다.

중국어사에서 ‘형의 아내’는 ‘嫂’나 ‘嫂子’라 부르고, ‘아우의 아내’는 ‘婦’ 또는 ‘弟婦’등으로 부르는 반면, 한국어사에서는 각각의 1음절어 호칭은 물론이고 ‘兄嫂’와 ‘弟嫂’ 등의 독특한 구성 방식을 갖는 호칭이 보인다. 한국어에서의 이 두 호칭은 처음에는 중국어와 동일한 호칭으로 사용되다가 발전 과정에서 달라지게 된 듯 하다. 본고에서는 한·중 두 인척 호칭의 어원과 특징을 通時的으로 살펴 보고, 한국어 호칭이 중국어와 다르게 변화한 까닭

2) 박현순, 「16세기 士大夫家の 親族 秩序」, 『한국사연구』107호, 1999, p.77~80 참조.

3) 胡士雲, 『漢語親屬稱謂研究』, 商務印書館, 2007, p.3~4 참조.

과 고유어의 유무 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어의 인척 호칭 ‘嫂’와 ‘婦’에 대한 고찰

1) ‘嫂’에 대한 通時的 고찰

현대 중국어에서는 형이나 오빠의 아내를 ‘嫂子’ 또는 ‘嫂嫂’라고 하고, 한국어에서는 형의 아내를 ‘兄嫂’라고 부른다. 먼저 공통 형태소인 ‘嫂’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漢語大詞典』에 수록된 ‘嫂’의 의미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형의 아내
- ② 기혼녀의 통칭

모두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의미항목이다. 字形을 살펴보면, 『說文』에는 ‘嫂, 兄妻也. 從女, 叟聲.’이라 하여, 本義가 ‘형의 아내’인 形聲字로 풀이되어 있다. ‘嫂’字와 현재 통용되는 字形인 ‘嫂’의 관계는 『國語·齊語』의 注에 ‘嫂’는 ‘老’의 뜻이고 ‘叟’라고도 쓴다⁴⁾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개념의 및 字音이 동일한 本字와 異體字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玉篇』에 ‘嫂, 兄之妻也. 嫂, 同上, 俗又作媯.’(嫂는 형의 아내이다. 嫂도 위와 마찬가지로인데, 민간에서 또 媯라고도 한다)라 했으니, ‘嫂’와 ‘媯’, ‘媯’는 모두 같은 글자이다.

또한 ‘嫂(嫂)’에 대한 여러 주석을 살펴 보면, ‘嫂’가 단순히 소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儀禮·喪服』의 ‘謂弟之妻婦者, 是嫂亦可謂之母乎.’(아우의 아내를 ‘婦’라고 한다면, 이는 형수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구절에 대한 鄭注에 ‘嫂者, 尊嚴之稱, 是嫂亦可謂之母乎? 嫂猶叟也. 叟, 老人稱也.’(嫂는 존엄한 호칭이다. ‘형수도 어머니라

4) 王力, 『同源字典』, 山東教育出版社, 1992, p.306~307 참조.

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서 ‘嫂’는 ‘叟’와 같고, ‘叟’는 노인을 칭하는 것이다)라고 주해하였고, 단옥재는 ‘按古者重男女之別. 故於兄之妻尊嚴之. 於弟之妻卑遠之.’(옛날에는 남녀의 차별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의 아내에 대해서는 존엄하게 하고, 아우의 아내에 대해서는 낮추게 하였다.)라고 주해하며 형성 검 회의자라고 보았다. 『釋名』에도 ‘嫂, 叟也. 叟, 老者稱也. 叟, 縮也. 人及物老, 皆縮小于舊也.’(嫂는 叟이다. 叟는 노인을 일컫는다. 줄어들다의 뜻이다. 사람과 만물이 늙으면 모두 옛날보다 작아진다) 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叟’는 소리를 나타내면서 ‘叟=老’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글자이므로 ‘嫂(嫂)’는 形聲字가 아니라 形聲謙 會意라고 보는 것이 옳다.

‘嫂’는 先秦시기에 처음으로 보인다. 『爾雅·釋親』에는 ‘女子謂兄之妻爲嫂.’라고 하여, ‘嫂’는 여동생이 오빠의 아내를 ‘嫂’라 부르는 호칭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남동생은 형의 아내에게 ‘嫂’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인가? 아래에서 ‘嫂’의 여러 가지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曰：「嫂溺則援之以手乎？」(『孟子·離婁篇第四』)
(문기를: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해야 합니까?)
- ②蘇秦曰：「嫂, 何前倨而後卑也？」嫂曰：「以季子之位尊而多金。」(『戰國策·秦策』)
(소진이 말하기를: 형수님, 어찌 전에는 거만하더니 지금은 비굴하시오? 형수가 대답하길, 도련님의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기 때문이지요.)
- ③始高祖微時, 嘗辟事, 時時與賓客過巨嫂食. 嫂厭叔, 叔與客來, 嫂詳爲羹盡, 櫟釜, 賓客以故去. 已而視釜中尚有羹, 高祖由此怨其嫂.(『史記·楚元王世家』)
(처음에 고조가 가난하고 변변치 못할 때 일은 하지 않고 때때로 빈객과 더불어 만형수 집에 드나들면서 밥을 먹자, 형수가 그 시동생을 싫어하여, 시동생이 빈객과 와서 국을 달라 하면 국이 없다고 국술을 끓였다. 빈객들이 가버린 뒤 조금 있다가 부엌에 가서 국술에 국이 있는 것을 보고 고조는 그 형수를 원망하였다.)
- ④臣聞平居家時, 盜其嫂; 事魏不容, 亡歸楚; 歸楚不中, 又亡歸

漢. (『史記·陳丞相世家』)

(신이 듣기에 진평이 집에 있을 때 형수를 흠쳤고, 위나라를 섬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나라로 갔으며, 초나라에 돌아갔으나 맞지 않자, 다시 한나라로 도망왔다고 하였습니다.)

⑤昔者桓公小白殺兄入嫂, 而管仲爲臣.(『莊子·盜跖』)

(옛날에 환공 소백은 형을 죽이고 형수를 부인으로 삼았는데도 관중이 그의 신하가 되었다.)

⑥孟卯妻其嫂, 有五子焉 (『淮南子·汜論訓』)

(맹묘가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 다섯 아들을 두었다.)

⑦(夫餘)兄死妻嫂, 與匈奴同俗. (『三國志·東夷傳』)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이 흉노와 풍속이 같다.)

⑧父卒, 妻其群母; 兄亡, 妻其諸嫂.(『晉書·四夷·吐谷渾傳』)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러 서모를 아내로 삼고, 형이 죽으면 여러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⑨(高句麗) 兄死妻嫂.(『梁書·東夷傳』)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⑩其嫂知音, 聽於簾下.(『唐國史補上』)

(그 형수가 (거문고) 곡조를 잘 알아서 발 아래서 들었다.)

⑪德昔在故鄉時, 與兄同居, 嫂甚不賢, 德乘醉殺之.(『三國演義』第七十四回)

(龐德이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 형과 함께 살았는데, 형수가 매우 어질지(정숙하지)못하여서龐德이 술 취한 것을 틈타 형수를 죽였다.)

⑫後弟年長, 兄自外歸, 嫂置酒慰勞之, 呼叔同飲.(『北東園筆錄續編』)

(후에 아우가 장성하자 형이 외지에서 돌아왔고, 형수는 술자리를 마련하여 남편을 위로하였고, 아우를 불러 함께 마셨다.)

예문 ①은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함에 손을 잡아도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男女有別의 유가 사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형수라 부른 사람은 당연히 시누이가 아닌 시동생이다. ‘嫂’는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 모두 부를 수 있는 호칭이며, ①에서는 지칭어로 사용되었다. 예문 ②도 마찬가지로 시동생 蘇秦이 형수를 부른 것으로, 1음절어 ‘嫂’가 직접 호칭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상고 시기에 ‘嫂’는 직접 호칭어 및 지칭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③의 ‘巨嫂’는 현대 중국어의 ‘大嫂’, 즉 ‘큰 형수’이다. 고대 중국어에서 큰 형수는 ‘巨’나 ‘丘’를 덧붙여서 지칭하였고, 나머지 형수들은 현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數詞+嫂’의 형태로 나타났다. 예문 ⑤는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⑤와 ⑥을 통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收繼婚에 대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본래 漢族들은 유가 이념과 종법 질서를 중시하여 ‘兄死娶嫂’는 북방 이민족의 비윤리적인 결혼 풍습이라고 보았으나 漢族들에게도 일찍이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⁵⁾ 예문 ⑦~⑨는 중국 문헌에 나타난 夫餘, 鮮卑, 高句麗의 收繼婚에 대한 기록이다.

이상의 예를 통해 보건대 1음절어 ‘嫂’는 선진시기부터 清代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大嫂’나 ‘嫂子’같은 이음절어 속의 형태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어휘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다시 말하면, 상고 중국어 어휘는 단음절어가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였으나 차츰 이음절화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이음절어 ‘嫂子’, ‘嫂嫂’, ‘阿嫂’등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 중 ‘嫂嫂’는 현대 중국어 西南, 吳, 湘방언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阿嫂’는 吳, 客家, 閩, 粵방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⁶⁾

⑬姨娘娘姊妹, 嫂嫂阿哥妻. (『僧寶傳』)

(이모는 어머니의 자매이고, 형수는 형의 아내이다.)

⑭武松道: ‘家兄不惹禍, 免嫂嫂憂心.’(『金瓶梅』第一回)

(무송이 말하기를: ‘형은 형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⑮何清當時跟了嫂嫂進到廚下坐了. (『水滸傳』第十七回)

(하청이 당시 형수를 따라서 부엌에 들어와 앉았다.)

5) 『淮南子·汜論訓』에 또 ‘昔蒼吾繞娶妻而美, 以讓兄.’(옛날 창오요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름다워서 형에게 양보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漢族들도 兄弟共妻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胡士雲, 『漢語親屬稱謂研究』, 商務印書館, 2007, p.305~306 참조.

예⑬의 예문은 宋代의 문헌으로 이음절어 '嫂嫂'는 宋代에 처음 출현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普通話가 아닌 方言이다.

⑩ 阿嫂元是大哥妻.(『古尊宿語錄』卷第三十一)

(형수는 원래 큰 형의 아내이다.)

⑪ 衆人道：‘我衆兄弟各人敬阿嫂一杯酒.’(『醒世恒言』第三十六卷)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우리 형제들이 각기 형수님에게 술 한 잔씩 권한다.)

⑫ 酒家自與教頭滄州別後，曾知阿嫂信息否？(『水滸傳』第五十八回)

(우리가 교두(임충)과 창주에서 이별한 후, 형수님의 소식을 아십니까?)

이음절어 '阿嫂'도 宋代에 처음 출현하였고, 친족 호칭의 접두사인 '阿'와 결합된 '阿X'의 형식은 閩, 粵 등의 일부 남방 方言 지역의 친족 호칭어 형식과 일치하므로 지금도 이 지역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다.

⑬ 嫂子倒茶與他喫.(『儒林外史』第十六回)

(형수가 차를 따라서 그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⑭ 又問道：‘我的嫂子嫁與什麼人去了？’(『金瓶梅』第九回)

(또 묻기를: 내 형수가 어떤 사람에게 시집갔습니까?)

⑮ 賈瑞說道：‘嫂子連我也不認得了？’(『紅樓夢』第十一回)

(가서가 말하길: 형수님 저도 못 알아 보십니까?)

이음절어 '嫂子'는 明代에 처음 출현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주로 이 호칭을 사용한다.

이상으로, 上古시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인척 친족 호칭인 '嫂'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兄嫂'라는 호칭은 쓰지 않는 것일까? 중국 문헌에도 아래와 같은 몇몇 용례가 보인다.

⑯ 孝於父母，弟於兄嫂，信於朋友.(『淮南子·主術訓』)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과 형수에 공손하고, 친구에게 신의가 있다.)

㉓事兄嫂如父母焉.(『大唐新語』第十三章)

(형과 형수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 한다.)

㉔方走至堂屋, 聽見兄嫂二人正談話.(『彭公案』第九十六回)

(대청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형과 형수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위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중국 문헌에서 보이는 ‘兄嫂’는 ‘兄’과 ‘嫂’라는 단어를 병렬시켜 두 사람을 나타낸 詞組일 뿐, 우리 친족 호칭어처럼 ‘형의 아내’를 뜻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7)

2) ‘婦’에 대한 通時的 고찰

현대 중국어에서 남동생의 아내는 ‘弟婦’, ‘弟妹’, ‘弟媳(婦)’라고 하고, 한국어에서는 ‘弟嫂’ 또는 ‘季嫂’라고 부른다. 先秦兩漢시기에는 ‘婦’, ‘弟婦’, ‘弟妻’등의 호칭이 사용되었다.

먼저 『漢語大詞典』에 수록된 고대 중국어에서 ‘아우의 아내’를 나타내는 호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형태소 ‘婦’의 의미항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① 결혼한 여자
- ② 아내
- ③ 며느리

위의 세 의미항목에는 ‘아우의 아내’를 뜻하는 의미항목이 없다. 그러나, 『爾雅·釋親』에 ‘女子謂兄之妻爲嫂, 弟之妻爲婦’라고 하여 여자 형제가 아우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婦’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爾雅義疏』에서는 ‘然則婦爲卑服之稱, 嫂是尊老之號.’라 하였으며, 『儀禮·喪服傳』의 ‘謂弟之妻婦者’에 대한 鄭注에도 ‘謂弟之妻爲婦者, 卑遠之, 故謂之婦.’라고 주해하였으니, ‘婦’가 ‘아우의 아내’라는 호칭으로 보편 사용되었음

7) 현대 중국어의 일부 방언 지역 廈門, 海口 방언에서는 형수를 뜻하는 지칭어로 사용된다.

을 알 수 있다.

‘嫂’와 대응하는 호칭어로 사용된 ‘婦’라는 호칭에는 ‘嫂’와 마찬가지로 유가의 종법 질서의 개념, 즉 兄弟관계의 서열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인 특히 漢族들은『白虎通義 · 三綱六紀』에서 ‘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위치에 비견된다’⁸⁾고 지위와 권위를 부여한 반면, ‘弟’는 공손함이다. 마음은 따르고 행동은 전일하다(悌也. 心順行篤也)고 하여 호칭에 長幼有序的 개념을 확실히 나타내었다.⁹⁾ 따라서 그들의 배우자 및 호칭에도 이에 상응하는 종법 질서가 반영되어, 형의 아내에게는 존중의 의미를 담은 ‘嫂’라는 호칭을 부여한 반면, 아우의 아내에게는 존엄한 호칭을 만들어 주지 않고 ‘복종하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婦’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그 서열을 명확히 분별하였던 것 같다. 이 점에서 보면, 종법 개념을 유가의 중주국인 중국보다 더 강하게 중시해온 우리나라에서 아우의 아내를 ‘弟嫂’나 ‘季嫂’로 칭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婦’도 역시 이음절화의 경향에 따라 ‘弟妻’, ‘弟婦’, ‘弟媳’, ‘弟媳婦’ 등의 이음절어 호칭이 나타났다.

①且洪妻陛下之弟婦也, 洪女陛下之侄女也.(『魏書』列傳第八十三)

(홍의 아내는 폐하의 제수이고, 홍의 딸은 폐하의 조카 딸입니다.)

②弟婦亦無服, 嫂婦於伯叔亦無服, 今皆有之.(『朱子語類』卷第八十七)

(제수도 상복이 없다. 형수, 제수가 시숙과 시동생에 대해서도 상복이 없었으나 지금은 모두 생겼다.)

③奪弟妻爲姬.(『史記·荊燕世家』)

(제수를 빼앗아 첩으로 삼았다.)

④諸與弟妻姦者, 各杖一百七.(『元史』卷一百四·志第五十二·刑法三)

8) 『白虎通義 · 三綱六紀』: ‘兄者, 況也. 況父法也.

9) 熊焰, 「漢語親屬稱謂詞構詞理据中的文化意義」, 『湖北民族學院學報』, 1996. 第4期, p.89~90참조.

(제수와 간통하는 모든 사람은 각각 170대의 곤장을 때린다.)

⑤家裏有你嫂子和弟媳當着家. (『儒林外史』第四十四回)

(집에는 네 형수와 제수가 살림을 하고 있다)

⑥同到房裏看視弟媳婦病症.(『水滸傳』第四十九回)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제수의 병세를 보았다.)

⑦休得胡說, 這是你弟妹小嬌.(『三俠五義』 第五回)

(헛소리 그만하시오. 이쪽은 형님 제수씨입니다.)

‘弟婦’는 남북조 시기에 처음 출현하였고, 지금은 廣州방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弟妻’는 漢代에 처음 보이나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弟媳’, ‘弟媳婦’는 明·清代에 나타나서 지금도 長沙, 南昌방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清代에 나타난 ‘弟妹’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호칭으로 주로 北京같은 북방지역에서 많이 쓰인다.¹⁰⁾ ‘嫂’와 마찬가지로 여자 형제 뿐 아니라 남자 형제가 아우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어의 인척 호칭 ‘兄嫂’와 ‘弟嫂’에 대한 고찰

1) 한국 한자어 ‘兄嫂’의 출현 배경에 대한 推論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 ‘兄嫂’는 ‘형의 아내’라는 뜻의 단어인 반면, 중국어의 ‘兄嫂’는 병렬관계로 조합된 ‘형과 형의 아내’ 두 사람을 가리키는 詞組이다. 그런데 우리의 호칭이 흥미로운 것은 ‘嫂’에 본래 ‘형의 아내’라는 뜻이 있는데, 어째서 또 ‘兄’을 덧붙이게 되었을까하는 점이다. 한국 고전 종합 DB에서 연도가 명확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중의 ‘嫂’자가 포함된 예문 검색을 통해서, 필자는 이것이 아마도 ‘弟嫂’의 오용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은 일련의 예들을 찾아 내었다. 먼저 『朝鮮王朝實錄』의

10) 胡士雲의 친족 호칭 방언 대조표 참조, 『漢語親屬稱謂研究』, 商務印書館, 2007, p.124~125

용례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①各官散在向化人婚嫁不忌異姓四五寸， 甚至兄亡取嫂， 悖傷倫理.(『朝鮮王朝實錄· 태종 15년 을미』)
(각 고을에 산재한 향화인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異姓 4, 5촌도 꺼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살므로 윤리를 어긋나게 합니다)
- ②爲從父妻者爲叔母， 爲兄妻者爲嫂也(『朝鮮王朝實錄· 문종1년 신미』)
(중부의 아내는 숙모가 되고, 형의 아내는 형수가 된다.)
- ③其父爲虎所攬， 與其兄妻仲非， 不顧生死， 以所持鎌， 挺身力救得不死(『朝鮮王朝實錄· 성종 7년 병신』)
(그의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그의 형수인 仲非와 생사를 돌보지 않고 갖고 있던 낫으로 앞장서서 힘껏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다.)
- ④厥兄又死， 乃使兄妻呈訴於官曰 (『朝鮮王朝實錄· 명종 6년 신해』)
(그의 형이 죽자 형수를 시켜서 관가에 정소(呈訴)하기를)

이상의 예문에서 보면, ‘형수’를 뜻하는 호칭은 1음절어 ‘嫂’이고, ‘兄’과 함께 조합되면 호칭어가 아닌 ‘兄妻’와 같이 ‘수식어+중심어’ 구조의 詞組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인조 25년의 기록을 보면, ‘以曾因弟嫂喪事， 書通葬期于高陽.’(일찍이 제수의 喪事로 장사의 기일을 고양에 글로 통보했다)의 내용에서 ‘아우의 아내’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弟嫂’가 처음 나타난다. 인조 이전의 기록에 ‘제수’를 나타내는 호칭은 『朝鮮王朝實錄· 명종 20년 을축』의 ‘淫于弟妻， 瀆亂床第之罪， 不可赦也’(제수를 간음하여 침실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도 용서할 수 없다)에서도 보이듯이 ‘弟妻’로 중국어와 같다. 사실, ‘嫂’의 本義가 ‘형수’이므로, ‘弟嫂’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잘못된 조합이다. 그런데, 아마도 인조 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嫂’의 본래 의미를 혼동하여, 혼인을 통해서 형성된 인척이면 長幼에 관계없이 ‘嫂’를 썼던 것 같고, 그로 인해 인조 이후에 ‘兄嫂’라는 2음절 호칭도 생겨나게 된

듯하다. 즉 인조 때, ‘嫂’가 형태소로 사용된 이음절 호칭 ‘弟嫂’가 출현하면서, 의미상의 명확한 구별 및 음절 대응 등의 필연적 변화 요소들로 인해 ‘兄嫂’라는 호칭이 생겨나게 된 듯 하다.

- ⑤兄嫂患癘, 躬執湯藥, 祝天號呼(『朝鮮王朝實錄·숙종 39년 계사』)
(형수가 여역(癘疫)에 걸리자 몸소 탕약을 다리며 하늘에 축원하여 부르짖었다.)
- ⑥嫡兄嫂爲人本不廣(『朝鮮王朝實錄·영조 24년 무진』)
(적형수(嫡兄嫂)의 인품은 본디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 ⑦若不書示, 汝何以知義則嫂叔, 恩猶母子之句(『朝鮮王朝實錄·영조 49년 계사』)
(만일 써서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의리로는 형수와 시숙이지만 정은 모자와 같다는 글귀를 알겠느냐?)

⑤는 『朝鮮王朝實錄』에서 ‘兄嫂’라는 호칭이 처음 나타난 예문이고, 시기는 숙종 때이다. 이후 1음절어 ‘嫂’, 2음절어 ‘兄嫂’가 함께 사용되다가 현대 국어에서는 ‘嫂’가 단어가 아닌 형태소로만 남아 있다. 다음은 『朝鮮王朝實錄』이 아닌 우리나라 기타 고전 문헌에 쓰인 용례들이다.

- ⑧弟與其母及兄妻在室. 弟有欲心. 則謂兄妻曰. 嫂乎嫂乎. 願借溫柔. 兄妻亦不拒從之.(『慵齋叢話卷之十』)
(아우가 그 어머니와 형수가 방에 있는데, 아우가 욕정이 생겼다. 형수에게 말하길, 형수님, 형수님, 부드러움을 좀 빌려주세요. 형수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 ⑨婦人謂兄之妻. 亦曰兄嫂.(『星湖先生全集卷之四十七·雜著·補釋親』)
(부인은 형의 처라고 부르는데 또 兄嫂라고도 한다.)
- ⑩倭皇納后, 不避同姓至親. 故國俗皆然. 兄嫂妻弟之寡居者, 亦爲率畜.(『東槎日記坤·聞見錄』)
(왜황은 황후를 맞이하되 동성과 지친을 피하지 않고, 또 나라 풍속이 다 그러하여 형수 또는 처제가 과부로 있으면 역시 동거를 한다.)

⑪嘗依於兄嫂. 事之如母.(『直齋集卷之九·行狀·敦寧都正朴公行狀』)

(일찌기 형수에게 의지하며, 어머니처럼 섬겼다.)

⑫速告亡兄嫂氏.(『孤山遺稿卷之四·書·單與李進士萬封書』)

(빨리 돌아가신 형수씨께 고하게.)

⑧은 1음절어 '嫂'가 직접 호칭어로 사용되었고, '兄妻'라는 詞組가 사용된 성종 때의 문헌에 나타난 용례이다. 필자의 추론대로라면 이 시기는 '兄嫂'라는 호칭이 나타나기 전이다. ⑨~⑫에서는 2음절어 '兄嫂'가 사용되었는데, ⑨의 문헌은 편찬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나 저자가 숙종 때부터 경종 때까지의 사람이므로, 역시 숙종 이후의 용례로 볼 수 있다. ⑩과 ⑪도 숙종 때의 문헌이고, ⑫는 정조 때의 문헌이다.

따라서, 우리 국어에서 '형의 아내'를 뜻하는 호칭은 朝鮮時代 인조 이전에는 '嫂'라는 1음절어가 직접 호칭어 및 지칭어로 사용되다가, 인조 때 '弟嫂'라는 잘못된 호칭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인조 이후에 의미상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2음절어 호칭 '兄嫂'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한국 한자어 '弟嫂'에 대한 通時的 고찰

다산 정약용은 『雅言覺非』卷二에서 '嫂者,兄妻也. 東俗弟妻亦謂之弟嫂. 叔者, 夫弟也. 東俗夫兄亦謂之叔氏, 呼之曰阿自般伊. 妹者, 女弟也. 東俗姊夫, 亦謂之妹夫. 皆誤.'(嫂는 형의 아내를 말한다. 우리나라 풍속에嫂는 아우의 처에게도 弟嫂라고 부른다. 叔이란 지아비의 아우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지아비의 형도 또한 숙씨(叔氏)라고 하는데 부를 때는 '아자반이'라고 한다. 妹는 여자 아우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姊夫를 또 妹夫라고도 부르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여 '弟嫂'가 잘못 사용된 호칭임을 밝혔다. 이 밖에 우리 문헌에서 '弟嫂'라는 호칭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不知兄嫂弟婦之有分, 而渾稱弟嫂.(『靑莊館全書卷之五十八·盡

葉記·以寸計族戚』)

(형수와 弟婦의 분간이 있음을 모르고 뒤섞어서 弟嫂라 일컫는다)

②兄妻爲兄嫂, 弟妻爲弟婦. 而俗例稱弟之妻, 亦謂以嫂, 似乎不合. 而人皆通行, 愚亦未免從俗, 然恐無大害於義也. (『肅齋集卷之十八·書·答安教翼』)

(형의 아내를 兄嫂라 하고, 아우의 아내를 弟婦라 하는데 풍속에는 아우의 아내를 칭함에 嫂로도 부르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모두 통용되고 있으니 나도 풍속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아마도 뜻에 크게 저해되지는 않는 듯 하다.)

우리의 고전 문헌을 살펴 보면, 최초로 ‘아우의 아내’를 나타내는 우리의 호칭 및 지칭 역시 중국어와 동일한 ‘弟婦’ 또는 ‘弟妻’ 등이고, ‘弟嫂’의 출현 이후에도 문헌에서는 여전히 ‘弟婦’등의 호칭이 같이 사용되었다.

③松溪公長女, 某之弟婦也.(『淸陰集 第30卷·墓碣銘』)

(송계공의 큰딸이 나의 弟婦여서 집안끼리 서로 잘 지냈다.)

④先輩以爲嫂則兄嫂也. 妻則已妻也. 婦則弟婦也. (『果菴先生文集 卷五·書·答或人家禮問目』)

(옛사람들은 嫂는 형수이고, 妻는 자기의 아내이며, 婦는 아우의 부인이라고 여겼다.)

⑤嫂婦, 兄嫂弟婦.(『闇隱集卷之二·聞見錄·家禮釋義』)

(嫂와 婦는 형수와 제수이다.)

이상의 예문들은 선조 이후의 문헌들이다. 다음은 인조 때 ‘弟嫂’라는 호칭이 오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弟嫂’의 용례들이다.

⑥而路臺石上有一封書, 家婢持納於弟嫂, 弟嫂忽送于臣家(『朝鮮王朝實錄·영조 28년 임신』)

(길가 대석 위에 봉서 하나가 있는 것을 계집 종이 가져다가 신의 제수에게 주니 제수가 바로 신의 집으로 보내 왔습니다)

⑦譯官之子婦至於自斃, 其弟嫂相繼縊死.(『朝鮮王朝實錄·영조 30

년 갑술))

(역관의 머느리가 자살하게 되고 그 제수도 잇달아 목매어 죽었습니다.)

⑧季哲, 以驅迫弟嫂自溺罪, 甲子七月到配(『승정원일기·고종 2년 을축·7월29일』)

(계철은 제수를 구박하여 스스로 물에 빠져 죽게 한 죄로 갑자년 7월에 배소에 도착하였다.)

⑨季嫂新産之安否, 無由聞知(『燕行錄·燕行日記』)

(제수가 아이를 안전하게 낳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⑩弟不幸遭季嫂之夭(『月谷集卷之十一·書·答南德哉』)

(아우가 불행하게 제수의 죽음(요절)을 맞았다.)

이상의 예문을 통해서, ‘弟嫂’라는 호칭 외에 ‘季嫂’라는 호칭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의미상으로 잘못 조합된 ‘弟嫂’와 ‘季嫂’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弟婦’는 도태되었다.

3) 한자어 ‘兄嫂’와 ‘弟嫂’에 대응하는 고유어 존재 여부 고찰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호칭어 ‘兄嫂’와 ‘弟嫂’를 동시에 살펴 보면서 생긴 의문점은 우리 고유의 호칭어가 존재했는지의 여부인데, 『頤齋遺藁卷之二十五·雜著·華音方言字義解』에 보면 ‘於叔母本呼아촌어미. 卽亞母之謂. 而今又通呼於伯母姑母姨母及兄嫂矣. 今又轉呼아즈마. 아즈마, 亦曰아즈미聲急而短也.’(숙모는 본래 아촌어미라고 불렀다. 즉 작은 어머니라는 뜻이다. 지금은 또 큰어머니, 고모, 이모 및 형수를 부르는데 쓰기도 하고 지금은 아즈마로 전음되었다. 아즈마 또 아즈미라고도 하는데 소리가 급하고 짧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문헌상의 기록 및 조항범, 이기문, 최창렬 등의 연구에 따르면, 16세기에 『飜譯老乞大』에 ‘아즈마’¹¹⁾가 나오고, 『訓蒙字會』에서는 ‘嫂’와 ‘孀’¹²⁾을 ‘아즈미’¹³⁾로 풀이하었다. ‘아자마’는 작다

11) 조항범,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한국문원, 1997, p.40 참조.

12) 중국어에서 ‘孀’, ‘孀子’도 제수를 나타내는 호칭이다.

는 뜻의 형용사 어간 ‘앗-’과 어머니를 뜻하는 호칭 ‘아마’가 결합된 어형으로, ‘아자마>아즈마>아즈마>아주마>아줌마’의 변천 과정을 거쳤고¹⁴⁾, 아주머니는 ‘아촌+어미’¹⁵⁾가 결합된 어형으로 ‘아즈마니>아즈마니>아주마니>아주머니’의 변천과정을 거쳤다고 한다.¹⁶⁾

고전 국어에서 ‘아즈마’, ‘아즈미’, ‘아즈마니’는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고모, 이모, 형수’ 등의 여성 친족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弟嫂에도 쓰이는 호칭이라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訓蒙字會』에서 ‘孀’에 대한 고유어를 ‘아즈미’로 해석하였다면, 이는 곧 ‘아즈미’가 ‘弟嫂’를 나타내는 호칭이기도 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따라서 ‘兄嫂’와 ‘弟嫂’에 해당하는 우리의 고유어는 현대 국어에서 ‘기혼 여성’을 뜻하는 ‘아줌마’의 어원인 ‘아즈마’이고, 이로 인해서 남자들이 형수와 제수를 ‘아주머니’라고도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韓·中 인척 호칭어 ‘형수’와 ‘제수’에 대한 호칭을 通時的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어의 친족 호칭에는 강한 중법 질서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부계 사회에서 형의 배우자인 형수에게는 특별히 ‘嫂’라는 호칭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우의 부인들과 차별되는 존귀한 위치를 나타내었다. ‘嫂’는 선진시기에 처음 출현하였고, 이후 중국어의 이음절화 추세에 맞추어 ‘嫂子’, ‘嫂嫂’, ‘阿嫂’ 등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1음절어 ‘嫂’는 先秦 시기의 주요 호칭으로 직접 호칭어 및 지칭어로 근대까지 사용되다가 현대

13) 이기문, 「‘아자비’와 ‘아즈미’」, 『국어학』제12집, 1983, p. 3 참조.

14) 조항범, 上同 p.40~42 참조.

15) 최창렬, 「우리 말 친족어의 어원적 의미」, 『국어교육』, 1985, p.398~399 참조.

16) 조항범, 上同, p.41~42 참조.

중국어에서는 형태소로서만 사용되어진다. 현대 중국어에서의 표준어는 明代에 처음 출현한 ‘嫂’이다.

둘째, 아우의 아내를 나타내는 호칭은 ‘婦’이다. ‘婦’는 字形 자체가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복종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종법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제수’의 호칭으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婦’역시 현대 중국어에서는 형태소로만 존재하고, 이음절화의 경향에 따라 ‘弟妻’, ‘弟婦’, ‘弟媳’, ‘弟媳婦’ 등의 형태가 나타났고, 직접 호칭어 및 지칭어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한국어에서 ‘형의 아내’를 뜻하는 호칭은 ‘兄嫂’이다. 1음절 ‘嫂’만으로도 형의 아내라는 뜻인데, 또 ‘兄’자를 덧붙인 것은 아마 인조 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嫂’의 본래 의미를 혼동하여, 아우의 아내에게도 ‘嫂’라는 호칭을 썼던 것 같고, 이것이 발전하여 ‘弟嫂’라는 잘못된 호칭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여 ‘兄嫂’라는 2음절 호칭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한국 한자어 ‘弟嫂’는 단어의 구성 자체가 의미상으로 통하지 않는 잘못된 호칭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본래의 ‘弟婦’라는 올바른 호칭을 도태시키고 자연스럽게 ‘아우의 아내’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約定俗成의 결과물이라 하겠다. ‘季嫂’라고도 부른다.

다섯째, 한국 한자어 ‘兄嫂’와 ‘弟嫂’에 대응되는 우리 고유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의 ‘아줌마’와 ‘아주머니’의 어원이기도 한 ‘아즈마’와 ‘아즈마니’가 그것이다. 따라서 남자 형제들이 형수나 제수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고유어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본고에서는 ‘형수’와 ‘제수’의 뜻으로 사용된 韓·中 친족 호칭어를 通時的으로 고찰해 보았다. 필자는 향후에도 친족 호칭어의 올바른 사용 및 언어 문화 연구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친족 호칭어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조항범,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한국문원, 1997.
- 박현순, 「16세기 士大夫家の 親族 秩序」, 『한국사연구』107호, 1999.
- 이종서, 「14세기 이후 친족 용어의 변천과 친족 관계」, 『역사비평』63호, 2003.5.
- 이기문, 「‘아자비’와 ‘아즈미」, 『국어학』제12집, 1983.
- 최창렬, 「우리 말 친족어의 어원적 의미」, 『국어교육』, 1985.
- 이상규, 「친족 명칭의 혼란상」, 『새마을 연구 논총』,1985. 제5집.
- 王 力, 『同源字典』, 山東教育出版社, 1992,
- 胡士雲, 『漢語親屬稱謂研究』, 商務印書館, 2007.
- 王 琪, 『上古漢語稱謂研究』, 中華書局, 2008.
- 熊 焰, 「漢語親屬稱謂詞構詞理据中的文化意義」, 『湖北民族學院學報』, 1996. 4.
- 湯云航 외 1인, 「漢語親屬稱謂語與傳統倫理文化」, 『承德民族師專學報』, 2001.8.
- 袁庭棟, 『古人稱謂』, 四川教育出版社, 1994.
- 何九盈 외 2인, 『中國漢字文化大觀』, 北京大學出版社, 1995.

❖ ABSTRACT

A Diachronic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kinship terms : about 'elder brother's wife' and 'younger brother's wife'

Yu Hyuna

In China, elder brother's wife is called 'Sao' or 'Saozi' and younger brother's wife is called 'Fu' or 'Difu', etc. On the other hand, In Korea is called 'Hyeongsu' and 'Jesu'.

This paper aims to find that Korean and Chinese kinship terminology 'Hyeongsu' and 'Jesu's origin and characteristics. And considered reason that Korean kinship terms different changed with Chinese and investigated whether the presence of native language. In China, Kinship term reflected strict species act. Therefore, for elder brother's wife to give dignity 'Sao' in the title that made separately. In other hand, sister-in-law used 'Fu that means submission.

The first was to use the same type of Kinship terms in the Korean and Chinese.

Because Korea accept of the China's relative terms. But gradually confusion about the meaning of the original issued 'Sao' and wrong term 'Jesu' appeared. In response, 'Hyeongsu' as a two-syllable terms was shown whence they came.

Also through literature shows that '아즈마', '아즈마니 is called native tongue.

Key Words

친족 호칭, 형수, 제수, 결혼 문화(수계혼)

kinship terms, elder brother's wife, younger brother's wife, form of marriage(Shoujihun)

논문접수일: 2011. 04. 20.

심사완료일: 2011. 05. 25.

게재확정일: 2011. 06. 10.